



[산업]
윤종규 KB금융 회장
“패러다임 전환 가속
금융 본연의 역할로 대응”
05

[라이프]
신세계百 스마트코너
바코트만 가져오면
결제 ‘끌’
L1



루프탑 아래로 펼쳐진 남해... 삼천포 푸른바다 품에 안겨볼까



경남 사천시 목섬길에 부엉이호텔 루프탑.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경남 사천 삼천포에서 턱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가족여행·효도관광을 가보는 건 어떨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삼천포대교를 건너 우측으로 가다면 삼천포 유람선 터미널, 삼천포 여객선 터미널이 나온다. 남해 삼천포 부엉이호텔이 위치한 노산공원 앞까지는 금방이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삼천포 터미널까지 4시간 10여분 걸리고, 부엉이호텔까지 택시로 기본요금이면 닿는다.

부엉이는 먹이를 쌓아두는 습성이 있어 재물을 상징하기도 한다. 부엉이 도자기 500여점을 10년 넘게 모아온 삼천포 부엉이 호텔 강영규 대표와 사천시 팔포 음식특화지구의 두 세프를 만나 삼천포 회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다.

◆남해 삼천포 부엉이 호텔

삼천포 노산공원에 삼천포 아가씨상, 이순신 장군상, 박재삼 시인 동상이 있다. 그중 시인 박재삼은 삼천포 태생으로 겨레의 정과 한,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특이한 그만의 목소리로 노래하여 김소월·김영랑과 맥을 같이하는 민족 서정시의 전통을 이었다는 평을 들고있다.

여기 시거리와 노산공원은 박재삼 생가가 있었던 곳이며, 그가 자주 올라 시심을 기르고 그의 시속에 햇빛, 바다, 나무 등의 자연을 기억 할 수 있는 장소다.

노산공원 바로 앞에 남해 삼천포 부엉이호텔이 위치한다. 남해 삼천포 부엉이호텔은 사회적거리두기로 지침을 따르기에 그만이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호텔 바로 앞에 바다와 공원이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실내는 여느 5성급호텔 못지 않은 시몬스 구스 침구, 편백나무 천장 욕실, 매일 살균소독한 가운데 깨끗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특히 8층 루프탑은 1,2층으로 나

편안한 침구·오션뷰·루프탑 등 쾌적한 환경 자랑하는 부엉이호텔

쟁반문화·자연산 모듬회 일품 경매 열리는 어시장도 볼거리

뉘져 사천시내와 삼천포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목섬을 바라보며 남해 최고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용궁수산시장, 사천 바다 케이블카, 신수도차도선여객터미널, 남해 양떼 목장 등 주변 관광거리도 풍부하다. 사천CC, 타니CC도 30분 거리에 위치해 골퍼들도 주변 횟집들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7월 말부터는 조식메뉴가 운영 예정이고, 스탠다드 트윈 룸 기준금, 토요일 할인가는 13만원부터

다. 예약은 삼천포 부엉이호텔로 직접 전화하거나 OTA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 홈페이지 및 전반적 운영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남해 삼천포 부엉이호텔 강영규 대표는 “과거 5, 6, 7층이 모텔이었고, 횟집이 6칸 있던 걸 1년 3개월 이상 리모델링해 1층에 횟집과 카페, 호텔을 연결시키는 라인을 완성 시켰다”고 밝혔다.

남해 부엉이호텔을 총괄 디자인 한 전 부천대 김정인교수는 “시작은 부엉이호텔 콘셉트가 맞다. 삼천포는 가족·효도관광으로 많이오는 지역으로 멋스러우면서도 대중적인 콘셉트로 잡았다”면서 “옥탑 루프탑 같은 경우는 짧은 층의 취향을 적극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삼천포 부엉이 호텔 루프탑은 싱그러움이 다르다. 바다 조망권이 최고인데, 룸안에서 보는 조망권도 좋다”고 말했다.

◆사천시 팔포음식특화지구

바다가 청정해역. 그래서 삼천포 회가 맛있다.

팔포음식특화지구엔 식당가가 많다. 부엉이호텔 후문을 나오면 부



삼천포 부엉이호텔 객실.



오전 4시, 10시 열리는 삼천포 어시장 경매.

영이 해물탕 횟집(바다향기횟집)이 보이는데 시원한 쟁반문화가 일품이다.

바다향기횟집 강연순 사장은 “우리집은 ‘춤추는 해물탕’이 유명하다. 해녀가 잡는 군소도 있고 삼천포 물회를 겸색하면 1위다”면서 “사천에는 7~8월 참고돔, 문어, 개조개, 소라, 가리비, 꽃게,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을 올라온다”고 말했다.

부엉이호텔 1층 우측에 위치한 삼천포횟집 이미연 실장은 “가족끼리 오면 자연산 중자 모듬회 10만원(4인용)짜리를 많이들 드신다. 특히 물회가 특미다. 소스는 저희 집만의 레시피로 여름에 매실액기스가 들어가면 식중독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돌명계, 소라 등은 해녀들로부터 공수받고, 나머지 회는 매일마다 중개인한테 받는다”고 말했다.

◆삼천포 어시장 경매

사천과 삼천포로 가는 남해여행엔 삼천포 어시장 경매를 보는 것도 추천한다. 보통 새벽 4시, 오전 10시 수산물 경매가 열리는데 수산시장의 역동성 있는 활기찬 아침을 느낄 수 있다. 삼천포 어시장과 용궁수산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살 수도 있고, 직접 먹을 수도 있다.

/사천(경남)=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나라투어

‘천혜의 대자연’ 홍도·흑산도 여행 어때요

섬여행 2박3일 상품 기획



홍도.

/나라투어

섬선관광은 2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홍도에서 1박후 다음날 흑산도로 향한다. 홍도에서 흑산도까지는 약 30분 배로 이동해야 한다.

흑산도는 수산업과 관광업에 의존하며 천혜의 관광보고로 섬에 특유의 문화 유적이 많이 있는 섬이다.

흑산도 투어가 끝나고 유일한 호텔인 흑산비취호텔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목포항으로 나온다.

홍도 1박, 흑산도 1박 2박3일 일정으로 1인 22만7000원부터며 일자별로 상품 요금이 차이가 있다.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목포까지 KTX 연계가 가능하다.

/이민희 기자

온라인투어

항공부터 투어까지... 제주여행 한번에

제주여행 통합페이지 오픈



온라인투어 ‘제주여행 통합페이지’ /온라인투어

대한민국 여행기업 온라인투어가 최근 국내, 특히 제주 여행을 많이 찾는 고객들의 여행 소비를 감안하여 제주 여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예약할 수 있는 통합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투어에서 선보이는 ‘제주여행 통합 페이지’는 여기저기 검색하고 예약하는 번거로움 없이 항공부터 현지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간편함을 갖추고 있으며 함께 예약하면 추가 할인도 찾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 온라인투어는 국내항공, 국내숙박, 렌터카, 국내 투어·티켓 등 국내 여행상품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서비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고객이 할인도 찾을 수 있다.

/이민희 기자

한국MICE협회

マイ스 인재 양성 ‘영마이스 리더 프로젝트’

대학생·취준생 80여명 대상

오프라인 과정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온라인 과정에서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기본 이해와 행사 기획 실무를,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산업 트렌드, 하이브리드 마이스를 배울 수 있으며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기획서 작성 노하우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이스 분야별 멘토링과 기업 정보 공유를 통해 업계 채용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프로젝트 참가 신청은 온라인 MIC E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7월 24일까지 가능하다.

/이민희 기자